

민주,尹 수능 발언에 “학생·학부모 혼란…대안 분명히 밝혀야”

강득구 “복잡한 교육 문제 검사 특유 카르텔로 접근”

홍성국 “교육 문외한 혼수질은 잘못…무대포 지시”

더불어민주당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
학수능능력시험(수능) 관련 발언으로 학생·
학부모의 혼란만 가중시켰다고 비판했다. 최
근 이어진 문책성 인사와 한국교육과정평가
원 감사에 관해서는 “복잡한 교육계 문제를
검사 특유의 카르텔로 접근했다”는 지적도
나온다.

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
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“윤석열 대통령은
지난 15일 수능과 관련해 ‘변별력은 갖추되
학교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문제를 풀 수
있도록 출제하라’, ‘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
는 내용은 출제에서 배제하라’고 언급했다”
고 밝혔다.

그러면서 “이후 대통령실과 교육부는 ‘공
정한 변별력은 모든 시험의 본질이다’, ‘쉬운
수능, 어려운 수능을 얘기한 게 아니다’고 다
시 밝혔다”며 “교육개혁을 하라고 했더니 작
년 ‘만 5세 초등입학’을 꺼내 학부모들을 아
프게 하고, 올해는 ‘실익은 수능 폭탄’을 꺼내
수험생분들을 혼란에 빠뜨렸다”고 지적했다.
이러한 발언 이후 이해하기 어려운 행태들

이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.

강 의원은 “교육부는 수능 담당 교육부 국
장을 문책성 대기발령 냈고, 출제기관인 한
국교육과정평가원을 수사하듯 감사에 나서
겠다고 밝혔다”며 “복잡한 교육계의 입시 문
제를 검사 특유의 카르텔로 이해하고 접근하
면서 대통령의 무능함과 무도함이 또 한 번
등장한 것”이라고 비판했다.

이어 “대입국장은 교육부에서도 주요 보직
이고 1월에 발령을 받았는데 수능 5개월 전
에 인사 조치하는 것은 그 자체로 문제”라며
“희생양 삼기 그리고 전 정부 공무원 처내기
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. 이렇게 문제가
심각하면 왜 이주호 장관이 책임지지 않는
것인가”라고 꼬집었다.

‘교육당국과 사교육과의 카르텔’ 발언에 대
한 언급도 이어졌다.

강 의원은 “모순적이게도 학원가는 대통령
발언에 맞춰 대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
다”며 “교육 과정 외 길러문항으로 사교육이
먹고 살긴 했으나 그것을 없앤다고 구조적인
문제가 해결되거나 사교육이 경감되지는 않

는다”고 발언했다. 또 “교육당국과 사교육 업
체의 답합이면 먼저 증거를 공개하고 평가원
이 아닌 교육부를 먼저 감사하는 게 맞다”며
“6월 모의평가를 포함해 사교육 카르텔에 대
한 증거를 즉각 밝힐 것을 촉구한다”고 했다.

그는 이번 사태의 책임이 윤 대통령에게
있다고 규탄하면서 “대통령은 교육 과정 내
에서 출제하면서도, 변별력을 높이고, 사교육
을 어떻게 줄이겠다는 것인지 대안을 분명히
밝혀라”고 강조했다.

국회 교육위원회 차원의 대응 방안도 검토
될 것으로 보인다.

강 의원은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
“교육위 차원의 긴급대책을 세우고 현안질
의를 할 수 있도록 교육위를 열어야 한다”며
“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협의하도록 공식 요
청할 것”이라고 말했다.

홍성국 원내대변인도 같은 날 서면브리핑
을 내고 “뒤라고 변명해도 교육 문외한인 윤
대통령이 수능 출제 방식에 혼수질을 한 것
은 잘못”이라고 밝혔다.

그는 “비난이 쏟아지자 대통령은 애꿎은
교육부 대입국장을 경질하고, 이주호 교육부
총리를 단두대에 세우는 공포정치를 선보였
다”며 “만5세 입학 논란 때 박순애 부총리 경
질에 이은 교육부 수난시대. 교육부 공무
원들이 단두대에 서야 할 적폐인가”라고 꼬



집었다.

이어 “책임져야 할 사람은 교육부 공무원
도 장관도 아니다”며 “무대포로 지시를 내린
것은 대통령 본인”이라고 덧붙였다.

윤 대통령의 발언이 수능 난이도에 영향을
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.

홍 원내대변인은 “불수능이 될지 몰수능이
될지 몰라 혼란에 빠진 수험생들은 어떻게
할 것인가”라며 “올해 수능시험 난이도와 출
제 경향에 대해서 정부에서 누가 답할 수 있
나. 윤 대통령은 답할 수 있나”라고 비판했다.

그러면서 “학생들 못지않은 입시지옥을 견
디는 학부모들도 울분과 비명을 토하고 있
다”며 “대통령의 망발에 학부모들은 어질어
질하다. 오죽하면 선생님들도 ‘애들만 불쌍하
다’며 대통령을 욕했나”라고 지적했다.

또 “사교육을 타하기 전에 무너진 공교육
을 바로 세우는 것이 대통령이 해야 할 일”이
라며 “남은 임기 4년 대통령이 또 어떤 문제
를 만들지 국민은 걱정스럽다. 윤 대통령이
아마도 아는 범위 안에서 말하기 바란다”고
덧붙였다.

변영일 기자

이재명 “‘日오염수’ 미래세대 걸린 일…어른·정치 책무 다할 것”

“초등학교 선생님·학생 편지 받아…韓정부 책임 방기”



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“후쿠시
마 오염수 해양 투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
는 물론 미래세대의 생명과 안전이 걸려있는
일”이라고 밝혔다.
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

린 글에서 “경남 창원외 한 초등학교 선생님과
학생들이 보내준 편지를 받았다”며 “오염수 투
기에 맞서 우리의 바다와 밥상을 꼭 지켜 내야
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한다”고 말했다.
이어 “오염수 해양 투기는 태평양 연안 국가

는 물론 전 지구적인 해양생태계에 심각한 위
협을 초래한다”며 “12년 전 후쿠시마의 비극
이 안전보다 비용을 우선시한 인류에 큰 경중
을 올렸음에도 일본은 또다시 안전보다 비용
을 앞세운 결정을 내렸다”고 지적했다.

그러면서 “나아가 국민 안전과 우리 바다를
지켜야 할 한국 정부는 그 책임을 방기했다”고
비판했다.

이 대표는 편지를 인용하면서 “어른들의 이
권 싸움이나 정치적 수단이 아니라 미래 아이
들이 살아갈 환경을 생각하는 정책을 펼쳐 달
라”는 선생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겠다”고
강조했다.

또 “국민의 우려를 과감 취급하는 일부 정치
인들도 꼭 새겨들어야 할 말이라고 생각한다”
며 “미래세대에 더 나은 환경을 물려줘야 할
어른의 책무도,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할
정치의 책무도 다하겠다”고 덧붙였다.

최이슬 기자

담양군의회 제320회 제1차 정례회 개최

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



담양군의회(의장 최용만)는 15일부터 오는
27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제320회 제1차
정례회를 개최했다.

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23년도 상반기
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비
롯하여 2022회계연도 세입·세출 결산 승인안
및 예비비지출 승인안, 조례안, 동의안 등을 처
리할 계획이다.

주요 일정으로는 16일부터 3일간 군정 업무
전반에 대한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
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청취하고, 이어 21일부
터 조례안 17건(의원발의 7, 집행부 10) 및 동
의안 3건 등을 심사할 계획이며, 26일 예산결
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22회계연도 세입·
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
사 후 27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정례회를
마무리할 예정이다.

최용만 의장은 “이번 정례회에서 실시 예정
인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하
반기 계획에 대한 보고는 2023년 상반기 군정
을 총정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진행
상황을 세심하게 점검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
조례안 등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해줄 것
을 의회와 집행부에 당부” 했다.

담양=박종영 기자

호남신문 광고안내

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
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.
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
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.
믿고 맡겨 주십시오.
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.

기사제보
(062)
222-2580

광고문의
(062)
228-2580

축하·근조화환 전문점



전국 꽃배달 서비스

60,000

농장직영 광주꽃도매

직통전화 010-2400-7774
주문팩스 062-946-0053